

「청동기시대의 어로상」 토론요지문

이영덕

호남문화재연구원

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청동기시대 어로상을 밝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토론자 역시 공감한다. 발표자는 서해안에 제한적으로 남겨진 패총유적과 내륙유적에서 발견된 토제어망추와 같은 어구를 통해 청동기시대 어로상을 밝히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가도, 안면도와 같은 패총유적이 시사하는 바는 한시적으로 굴과 같은 패류에 한정된 채집행위가 일어났거나 상대적으로 정주가 가능한 안면도와 같은 곳에서 사계절 어로가 가능했던 것은 조와 기장과 같은 곡물의 재배가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어로상의 변화가 외양성에서 내수면어로로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농경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찬성하며,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내수면 어로의 방법이다. 역시 남겨진 자료를 통한 유추의 한계가 있었음에는 분명하나 토제어망추(망어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어로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유적의 입지나 유적이 끼고 있는 강의 수심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내수면에서의 원시적인 어로방법은 발표자가 예를 들고 있는 망어법(투망, 채후리그물, 유자망) 이외에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잡는 방법(맨손, 독초, 돌을 이용한 간접타격 등)이나 남겨지지 않는 유기물 재질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가리, 통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발표자의 전반적인 논지는 청동기시대 패총의 감소와 내륙 유적 토제어망추 다량 출토의 요인을 농경중심 사회로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토제어망추를 통한 어법을 공동작업을 전제로 한 망어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발표자가 예를 두고 있는 투망을 제외한 채후리그물이나 유자망의 경우 수백여점 어망추가 필요한 어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한꺼번에 수백여점의 어망추가 한꺼번에 출토된

예가 있는지?. 익산 영등동 1호주거지의 경우 중심무게 25g 내외의 토제어망추가 24점이 한꺼번에 출토되었으며, 함천 저포리 E지구 4호주거지에서는 10g 미만의 원판형 토추 51점이 출토된 예가 토론자가 인식하는 정도이다. 그 외의 유적에서는 10여점 내외로 소량 출토되었을 뿐이다. 한편 현재의 투망은 무게 30g 내외의 추가 120여개 내외로 달려있다. 물론 남겨진 유물이 사용되었던 총량은 아닐 수 있으나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유적에서조차 공동작업을 전제로 한 채후리그물이나 유자망과 같은 망어법에 무게를 둘 만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어망추의 무게와 유적 주변의 유숙, 수심 등을 고려한 복원이 전체되어야 하겠지만 토론자는 반두와 같은 어구에 매달았던 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세째, 조성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포경이나 전영암출토 용범의 낚시바늘 크기(길이 6.7cm, 5.4cm)를 볼 때 청동기시대에도 외양성 어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국지적으로나마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조직화된 어로행위의 가능성은 없는지?